

Jean-Pierre Hervé Bazin

1991년생. 프랑스 작가. 부르조아 계급의 결합과 가족적 속박, 산업문명의 폐해에 대한 격렬한 풍자를 담은 소설을 썼다. 대표작은 *Vipère au poing*(1947)이며 Académie de Goncourt 심사위원장.

Hervé Bazin씨와의 대담

원운수 : 오늘 저녁에는 선생님과 프랑스 문화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문화는 자연과 반대되는 것인가요?

Bazin : 제 생각으로는 문화를 지나치게 편협하게 정의하는 것은 문화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문화는 복합적인 것입니다. 문화가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국의 문화가 프랑스의 문화와 차이가 없다면, 한국의 문화는 프랑스의 문화를 풍요롭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화는 꽃다발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 꽃다발은 점점 모든 사람에게 의해 공유 되어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문화는 다른 몇몇 나라의 문화보다는 좀 더 오래된 문화입니다 (한국의 문화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한국의 문화는 정말 오래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프랑스 문화는 다른 문화에 있어서는 결합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의해 본질적으로 특징지워집니다. 말하자면 데카르트 철학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이성적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로는 지나칠 정도지요. 프로이트는 이 모든 것을 종식시켰습니다. 약 50년전부터 이 주제에 대해 여러 학설들이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학설들은 고전주의 시대에 알려져 있던 것들과는 대단히 다른 것입니다. 특히 모든 것이, 예를 들면, 초현실주의 같은 것에 의해서 가치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운 소설들 혹은 다양한 학파들의 모든 경향들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두드러진 현상들 중의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더이상 자신의 문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위해서 자신의 문화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운수 : 어쨌든 문화는 공유된 내포가 아니겠습니까?

Bazin : 점점 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기술 문명이 완전히 보편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학 문명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문명과 문화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은, 그 수용과정에서, 보편적이라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명은 나라마다 서로 다르다는 또 다른 이점이 있어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이 다양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윤수 : 그렇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문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Bazin :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은 더 이상 그런 옛날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지요.

원윤수 : 프랑스 문화와 불어권 문화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Bazin : 저는 불어권이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불어를 40여개국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언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로 그점에서 우리는 '다양성'이라는 똑같은 문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캐나다와 불어를 사용하는 몇몇 나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기본 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불어 사전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성격이 드러나는 어휘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어휘들은 프랑스의 어휘가 아닙니다. '리퀴르 une liqueur'라는 용어는 프랑스에서는 술을 의미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액체 un liquide'의 뜻입니다. '우체국 la poste'도 캐나다어로는 그 뜻이 아닙니다.

원윤수 : 어쨌든, 캐나다에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Bazin : 선생님께서는 현지에서 생겨나고 또 다양한 현실에 어울리는 일련의 단어들을 말씀하시는군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불어를 사용하는 각 나라의 특성들을 살려서 불어를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어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동일한 통사구문과 공통 언어는 지켜져야 합니다. 이미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이티에서 선생

님은 더 이상 그곳의 주민들과 불어로 의사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불어가 너무나 많이 변해 버린 것입니다. 불어를 말할 줄 아는 지식인들만이 당신과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지요. 예를 들어, 크레올어가 더 이상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분화되어서는 안됩니다. 크레올어는 많은 용어와 표현으로 불어를 풍요롭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벨기에나 스위스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이 '90 quatre-vingt-dix'라고 말하지 않고 'nonante'라고 말해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해됩니다. 그것은 라틴어입니다. 그렇지만 아카디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미 극한에 이르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카디아에서 사용되는 'chiac'이라는 속어불어 표현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퀘벡 속어인 '주알 joual'이라는 표현도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알'어는 영국식 표현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캐나다어, 그러니까 캐나다 불어", 발전하고 있는 표현이지요. 저는 사람들이 여러번 되풀이해서 전체 불어권 주민을 다시 결합시키는 것은 언어를 단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연코 그것은 아닙니다!, 서로에게 공통되고 우리 모두를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존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윤수 : 아주 좋은 일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문화가 이룩한 것과 그것의 미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Bazin :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프랑스에는 몇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놀랄만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불어가 아주 늦게 국어로 지정되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년이나 라틴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윤수 : 천년이나요?

Bazin : 그렇습니다. 불어는 800년에서 1000년 경에 라틴어에서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루이 14세 치하에서, 그리고

2-3세기 전까지도 기념물에 적힌 문구들이 모두 라틴어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라틴어로 말하는 습관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라틴어에서 벗어났으면서도 정말 오랫동안 라틴어를 간직해온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라틴어가 신성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의 언어지요. 불어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언어입니다. 우리가 약간 '지적이지' 않다면 프랑스인 최초의 진정한 문학 작품인 '롤랑의 노래'를 이해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15세기에 사람들이 그 내용을 따라갔다는 것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19세기에 누가 프랑스에서 불어를 사용했겠습니까? 매우 소수지요. 사람들은 사투리로 말을 했고 사실 도처에서 사투리를 사용했습니다. 독어가 아니라 독일 사투리를 사용했던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의 통일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언어의 통일은 국민학교 교사들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언어를 통일시킨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의무교육에 따라서, 브르타뉴 지방의 아이들은 그들의 언어가 아니라 바스크 사람들처럼 말할 것을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뒤늦게 나온 현상입니다. 물론 언어의 통일은 문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훨씬 오래 되었습니다. 위대한 세기인 루이 14세 치하는 위대한 개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대한 시기에 우리들의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이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프랑스적인 현상만은 아닙니다. 저는 거의 모든 지방에서 문맹을 완벽하게 퇴치하고 모든 지방에서 언어를 통일시킨 이 세기에 이루어진 거대한 작업들은 한세기 후에야나 더 잘 평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어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수많은 이탈리아어에서 나온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은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철자법은 극히 최근의

현상입니다. 볼테르는 자신의 책을 출간할 때, 그는 자신의 출판업자들에게 “당신들은 어떤 철자법을 사용하는 거요?”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철자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네덜란드 철자법이 인정 받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인쇄업자들은 그들이 가장 훌륭한 불어철자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지요! 철자법이란 하나의 발명품입니다. 그것 역시 하나의 영역입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책을 한권 썼습니다. 아주 재미있지는 책이지요. 불어의 변천에 따라, 12세기에 시작되어 지금 우리의 발음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철자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oi’는 [wa]로 발음됩니다. 저는 아니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올바른 철자법은 ‘wa’입니다. 그것은 [i]에서 나온 발음입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 조금씩, 그것은 [w]로 변화되었고, 아주 다른 발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글쓰기 속에 이러한 천년 동안의 변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선생님은 불어에 있어서 최초의 저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주 재미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라틴어로만 글을 썼습니다. 12세기까지 판결문들은 라틴어로 내려졌습니다. 12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왕이 “라틴어뿐만 아니라 ‘속어’로도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오”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속어로 번역 하는 작업을 맡은 사람들이 필경사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역할’에 따라서, 말하자면 문장의 길이에 따라서 보수를 받았습니니다. 이것이 ‘amüier’와 같은 단어나 ‘S’나 ‘F’를 두번 겹쳐 쓰는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Femme’는 12세기에는 ‘dame’라는 의미로 ‘fame’라고 씌여졌습니다. ‘femme’라고 쓰는 것이 더 길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가 라틴어 ‘Femina’에서 나왔으므로 따라서...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선생님께서는 어원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던 시대, 그러니까 우리

가 평화를 의미하는 'domtare'에서 유래되었다는 것도 모른 채, 'p'를 집어 넣어서 'dompteur'라고 쓰곤 하던 시대에 많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이런 예들, 이런 종류의 오류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재미 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령 colonel'은 '(군대의) 종대 colonne'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대령 colonel'에는 'n'이 하나뿐이네 '종대 colonne'에는 'n'이 두개가 된 것이지요! 이런 예들은 원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철자법은 사슴의 뿔보다도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사슴은 오직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해 커다란 뿔을 달고 숲을 돌아 다닙니다. 실제로는 그 뿔은 사슴에게는 매우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언어도 사슴의 뿔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산물이지만 논리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의 산물이니까요. 진화는 모든 방향 속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논리 속에서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성되기를... 영어는 불어, 덴마크어, 색슨어에서 동시에 유래한 철자법들을 적용시켰고 그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철자법은 역사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언어의 형태론, 사물을 표현하는 언어 방식입니다. 불어는 정말로 매우 엄격한 언어입니다.

원운수 : 예, 그렇습니다.

Bazin : 불어는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또 망쳐 놓은 이런 류의 논리 정신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것은 불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원운수 : 선생님의 견해로는 불어가 통합 유럽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리라고 보십니까?

Bazin :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기해 볼 만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니다. 제 생각으로는 영어가 국제적인 의사 소통의 언어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더 이상 에스페란토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상했던 일입니다. 국제 언어는 바로 영어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어나 중국어 - 물론 중국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는 여러가지가 있으니까요 -,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불어 등은 제가 보기에는 커다란 문화 집단의 언어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지역적인, 그것도 광대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언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언어들(이)이 사라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바스크인들이 바스크어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 같은 것 말입니다 (바스크어는 매우 좁은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언어입니다.) 그렇지만 바스크어가 아리안어보다 더 오래되었고 그 지역에만 남아 있는 유일한 언어라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언어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브르타뉴어의 존속을 강력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골족이었을 때 말하던 것들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프랑크 사람들은 골족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프랑크 왕국 초기에 프랑크인들은 라틴어를 사용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게르만족의 언어를 사용한 것이지요. 그때의 기원을 가진 골족의 단어가 현재까지 정확하게 50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찾아낸 전부이고 더 이상은 없습니다 (주로 농기구 이름 들입니다). 그렇지만 라틴어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수많은 고유 명사들은 후에 라틴어화된 프랑크족의 용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바르도 Bardot' 부인은 당나귀와 암말의 산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뜻은 아니죠! 그것은 'barde'에서 온 것입니다. 'barde'는 게르만어에서 '큰 사람', '거인', '강한 자'의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당수의 게르만

용어들이 라틴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프랑크어의 용어들은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라틴어를 상당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포르투갈어와 에스파니아어, 이탈리아어 사이에는 불어 보다도 더 가까운 혈연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명확한 사실입니다.

원윤수 : 사람들이 유럽 공동체에 대해 언급할 때면 종종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Bazin : 그렇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것은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원윤수 : 선생님의 의견을 알고 싶군요.

Bazin : 저는 그 표현이 이 세계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은 제가 무척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좀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동의 체제를 갖는 것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체제는 경제적 체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체제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든 초강대국들은 연방국들입니다. 만일 소련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연방의 형태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련은 최악의 적들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미국인들이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문화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들은 각 주가 자치권과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는 연방국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들은 동일한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이나 인도도 같은 상황입니다. 중앙집권제는 좋지 못한 제도입니다. 통일성이라는 것은 중앙집권제가 아닙니다!

원윤수 : 프랑스인들은 차이점 속에서 일종의 조화를 찾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유럽 공동체속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될 이유겠지요. 우리는 그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Bazin : 우리가 영국을 제외한 다른 유럽 공동체의 회원국들보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불어권국가들로부터 지지 받고 있다는 이점이 있지요. 유럽에서는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 3개국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은 이점이자 동시에 불편한 점이기도 합니다. 만일 영국이 공동체에의 가입을 꺼려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그들이 영연방에 대해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프랑스는 제국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영국보다 훨씬 더 유럽적입니다. 그것은 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그 수가 많다는 특권이 있습니다. 불어는 강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제국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그 모든 나라들이 여전히 불어권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연맹 시절에 우리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연합에는 23개국,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3개국의 불어사용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양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즉 불어권에 더 많은 운신의 폭을 주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들은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2억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는 총 인구의 40퍼센트가 불어사용자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튀니지에서는 튀니지가 독립된 이후로 불어의 중요성이 배가 되었습니다. 알제리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알제리에서는 반대입니다. 모로코에서는 불어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 아, 불어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가 많은 아프리카의 한편을 온통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적도에서부터 프랑스까지 이르고 지역화가 잘 되어있는 곳이지요. 그러나 또 다른 저항세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캐나다가 아주 오래동안 저항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캐나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자주 가니까요. 현재 캐나다의 불어는 위협에 빠져있습니다. 루이지애나 정도는

아닙니다만 거의 비슷한 형편입니다. 불어권 카나다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앵글로 색슨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불어를 사용하는 작은 섬입니다. 2억 5천만명의 앵글로 색슨인들 속에 잠겨있는 인구 500만의 작은 섬이지요. 그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매우 높은 출생률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이 가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이었지요. 그러나 현재 그들의 출생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이민자들이 카나다로 계속 유입되고, 퀘벡에서만도 10명중 9명의 이민자들이 영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2,30년후면 침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지로 퀘벡에서는 영어사용자가 60만명에 비하여 불어사용자는 500만입니다. 퀘벡에서조차 영어사용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레베끄 Lésveque씨가 최소한 반독립정부를 만들겠다고 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거대한 카나다를 구성하고 있는 장점들과 불어권 문화 중에서 제 생각으로는 카나다인들이 불어권 문화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미 카나다의 불어는 완전히 잠겨있거나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프랭스 에두아르 아일랜드주에서는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누벨 에코스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불어는 우리가 네오-브런슈빅이라 불리는 옛 아카디아에서는 약간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불어 사용자의 비율은 45%입니다마는 그 이상은 되지 못합니다. 한때 우리는 그 비율이 50%를 상회하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출생률이 멈춰버리자 그것도 끝이었습니다. 아카디아에서의 불어 사용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도 상황은 끝난 상태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텔레비전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에서는 어린이들이 영어 학교에 다닌다 할지라도 예전에는 집에서 불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영어로 말하는 텔레비전이 면전에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계속 영어로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앵글로-색슨족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불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결코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선택해야겠지요. 우리는 아이티 섬을 잃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50년 내지 100년 후면 몇몇 지역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도 잃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에서는 확고하게 유지되어 갈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에 있어서는 견고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언어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스페인어는, 한때는 국제어였지만, 지금은 더이상 국제어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만도 스페인어 사용자가 3,000만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스페인어는 미국에서 제 2 외국어로서의 위치를 획득해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소수어인 포르투갈어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거대한 브라질 덕택에 위기에서 구해진 것입니다. 루이 15세가 아메리카를 포기했을 때, 아!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제가 퀘벡의 한 고급 호텔에 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곳은 생-로랑강이 온통 시야에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것을 제 눈앞에서 보면서 저도 모르게 “루이 15세 이 바보같으니...”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가 아무런 댓가도 얻지 못하고 그곳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니게 되는 감정인 것입니다. 영국인들이 캐나다를 요구하기 전에 마르띠니끄를 요구했었고, 그들에게 마르띠니끄 대신에 캐나다를 주어버린 사실 말입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입맛에 맞았기 때문이지요. 농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역사란 항상 예기치 못한 국면들을 가지고 있는 법이니까요.

원운수 : 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인터뷰는 제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홍명희 역>